



박소현의 섹.시.토크

남편의 어릴 적 별명은 '순한 양'이었다고 한다. 결혼 전 시택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자마자 그 이야기부터 꺼내셨다.

"애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순했는지, 꼬맹이때도 때를 쓸 줄 모르고, 사춘기때도 속 한번 썩인 적 없고..."

이렇게 시작하는 레파토리는 그날을 시작으로 만날 때마다 빠지지 않는다. 하긴 H가 보기에 남편은 꽤 순하고 착한 사람이다. 업무가 고달프기로 소문난 대기업 7년차 대리로 일하면서 힘들다고 불평 한번 없었고, 결혼준비를 하면서도 모든 것을 H에게 맞춰주었다. 이런 남자라면 결혼 생활이 참 행복하겠구나 싶었다. 내가 무슨 복이 있어 이런 남편감을 만났나 싶은 정도였다.

이 행복한 웨딩 스토리에 한 가지 미진한 점이 있다면, 섹스에 관한 것이다. 두 사람이 2년간 연애를 하면서 섹스를 한 것은 단 세 번, 그것도 결혼이 확정된 뒤의 일이었다. 단정적으로 말하면 그리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세 번의 경험으로 남편의 섹스타일을 모두 파악했다고 생각한 것이 실수였다. 막상 결혼을 하고 꿈에도 생각지 못한 남편의 숨겨진 본성을 목격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확히 결혼하고 한 달 즈음 일이다. 주말을 맞아 와이노 한 잔 하고 야한 비디오도 감상하면서 침실 분위기를 환관하게 끌어올린 덕분에 그날따라 남편은 평소보다 더 흥분한 듯 보였다. H역시 술기운에 적잖게 흥분해 있었다. 그렇게 둘 다 절정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던 중, 남편의 입에서 갑자기 욕이 튀어나왔다.



"이 XXX년!" 처음엔 귀를 의심했다. 비디오가 다시 켜진 게 아닐까 싶은 정도로 생소한 소리였다. 그런데 H의 남편은 또 한 번 욕을 내뱉었다. 흔히 심짜리 욕이라 말하는 그 욕이었다. 그 순간 H는 남편을 밀쳐내야 하는지 못 들은 척 해야 하는지 판

단이 서지 않았고 그러는 사이 섹스가 끝이었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욕을 했다고 심분 이해를 한다고 해도 상한 기분은 어쩔 수 없었다. 평소 욕을 잘 하는 남자라면 기분 나빠도 이해하고 넘어갔을지도 모르지만 남편이 누군가, 운전을 하면서 다른 운전자가 난폭하게 끼어들어도 욕 한번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닌가?

절정 향해 가던 순간 갑자기 "이XXX년!" 욕 들으며 섹스해야 하나 나도 같이 욕해야 하나

남편은 침대에 털썩 쓰러진 채 미동도 하지 않더니 한참 뒤 개미목소리로 "미안해"라고 말했다. "당신 원래 그렇게 욕 잘하는 사람이었어?" 차가운 H의 목소리에 남편의 어깨가 움찔했다. 잠시 뒤 무릎을 꿇고 앉은 남편은 눈물까지

욕을 해야 흥분하는 남자

글썽이며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요약하면 이렇다. 남편은 어릴 때부터 착한 아들 콤플렉스에 갇혀 자랐고 어른이 된 뒤에도 착한 남자 굴레에 갇혀 살아야 했다. 정작 자기 안에는 거칠고 나쁜 본성이 있는데 그걸 드러낼 수 없으니 스트레스 강도가 강해졌다.

그러다 H를 만나기 전 직장동료들과 함께 성매매업소에 가 섹스를 하게 되었고 그때 자신도 모르게 욕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순간 말로 할 수 없는 희열을 느꼈다는 것이다. H와의 섹스도 좋았지만 욕을 할 수 없어 제대로 된 희열을 느껴보진 못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 최고의 섹스였다.

성매매 전과에 욕을 해야 흥분하는 남자라... H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순한 양의 탈 안에 쉽게 타협이 안 되는 본능이 숨어있었다. 평생 남편의 본능을 위해 욕을 들으며 섹스를 해야 하나, 나도 같이 욕을 해야 하나, 아니면 이 남자의 입을 원천봉쇄해야 하나. 평생 욕 한번 듣지 않고 살아온 인생이라 판단은 더 쉽지 않았다.

일단 잡이나 자자며 H는 불을 껐다. 그러나 잡이 쉽게 울 리 없었다. 복병 없는 결혼생활은 없다던 선배의 말이 새삼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연애칼럼니스트>

검색절정 키워드 검색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민 경공(犬公)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상근이가 이번 주 네티즌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얼마 전 상근이가 참석에 있는 '저차집'을 방문해 아내 곱순이와 9마리의 강아지와 재회하는 모습이 방송을 타면서, 상근이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방송이 나가면서 순식간에 '상근이 2세'라는 단어가 검색어 순위에서 등장했다. 상근이의 어릴 적 모습과 똑같은 강아지들은 네티즌의 눈길을 끌었고, 작별의 순간에 차에서 강아지들에게 시선을 떼지 못하던 상근이도 덩달아

'국민 犬公' 상근이, 알고보니 유부남

인기 검색어의 주인공이 됐다. '리틀 노현정'이라는 별명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아나운서 최송현도 검색어 순위에서 이름을 올렸다. 상상 플러스 MC로 유명세를 탄 최송현은 "아나운서가 되는 순간 나의 꿈을 잃었다. 꿈꾸기 위해 힘들게 사직을 결정했다"고 밝히며 사표를 제출해 네티즌의 관심을 끌었다. 네티즌은 "현재 보장된 자리를 포기하고 과감히 꿈을 선택하는 모습 정말 대단합니다.", "방송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없어 아쉽지만, 앞날에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러다가 결혼 발표 뉴스

가 나오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살 소식도 들려왔다. 일본의 유명한 아나운서 카와다 아코가 지난 26일 차 안에 연탄가스를 피워놓고 자살해 네티즌을 충격에 빠뜨렸다. 지난 2005년 직장안으로 세상을 떠난 길은정씨의 부친도 스스로 목을 매 네티즌을 안타깝게 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자식을 먼저 보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명복을 빕니다. 따님과 그곳에서는 건강하세요.", "자식과 남편을 보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떨까. 안타깝다" 등의 글을 올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연루에 상근이 2세가 공개되면서 네티즌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Go board game diagram with numbered moves and a small inset diagram.

Go board game analysis section titled '제17회 光日盃' with a diagram and text explaining a move.

Baduk (Go) news section titled '바둑소식' featuring a match between Kim Jong-su and Im Min-jin.

Health article titled '리빙 센스' and '뱃살 빼는 습관 ①' with tips on diet and exercise.

Horoscope section titled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with daily forecasts for various zodiac signs.

Advertisement for '더마플라스트 밴드' (DermaPlast Band) featuring a family photo.

English learning section titled '굿모닝 잉글리쉬 <1171>' with a dialogue about giving a hand.

Japanese learning section titled '오하오우 니혼고 <1171>' with a dialogue about the Japanese word '裏' (ura).

Chinese learning section titled '니하오 쑹구위 <148>' with a dialogue about meeting at a certain time.

Chinese learning section titled '한자 이야기 <788>' with a story about the character '鯨' (jūng).